
제주 수정사서 펼쳐진 나누우리 희망나눔음악회. 신명나는 퓨전난타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

"病魔 이겨낼 사랑·희망 전해지길"

태고종 나누우리, 제주서 희망나눔음악회

태고종 국제구호기구인 (사)나누우리가 12번째 희망나눔음악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9월 9일 제주도 수정사(주지 도산, 태고종 총무원장)에서 열린 희망나눔음악회는 도산 스님,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 제주종무원장 탄해 스님, 원희룡 제주지사, 허법률 서귀포부시장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나누우리는 혈액암과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 송수빈(5) 어린이 등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장기간의 치료에 지친 환우가족을 위로하면서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마이산 탑사의 탑밴드의 색소폰 합주와 퓨전난타 공연, 김연선 교수의 한국고전무용, 진성 스님의 색소폰 독주, 이춘기 교수의 테너 독창, 뚜럼브라더스 제주방언 노래, 제주지역 인기가수 윤정, 숨소리 중창단 합창, 톱연주, 김은희 민요 등 치유와 위로의 선율이 서귀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수정사 주지 도산 스님은 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음악은 병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치료제다. 오늘 행사는 환우와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처님의 가피로 환우들이 빨리 쾌차해 부모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준비했다"고 환우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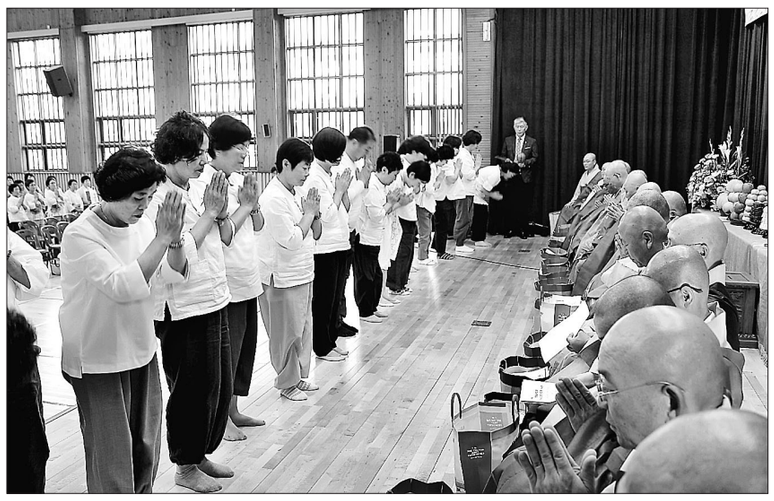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환우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탑밴드(단장 천순희)는 공연을 마친 데 이어 '떡볶이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과 봉사에 나섰다. 또 수정사 신도회는 500인분의 국수를 만발공양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가공양에 담긴 보살도 정신

전주불교연합회 9월 9일 공승재 및 영가천도법회


전주지역 공승재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양 올리는 모습.

전주지역의 사찰과 신행단체로 구성된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가 우란분절을 맞아 승가에 공양하는 공승재와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9월 9일 전주 서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승법회는 덕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등 20여 스님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제주 룸비니 산악회와 전주지역 내 각급 신행단체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우란분절을 맞아 목련존자의 효 사상을 되새기고 승가에 공양함으로써 어머니를 삼악도에서 구제했다는 〈목련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공승재는 신중작법에 이어 축복경 낭독, 법어, 승보공양, 영가천도시식의 순으로 이어졌다.

종고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승가에 공양하고 조상을 천도하는 것은 오래된 불교의 전통"이라며"승가와 재가불자들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불교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란분절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목련존자의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위해 보살도를 행하는 불자가 돼달라"며"이번 공승재를 계기로 효 사상이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위로받고 다시 희망을 찾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하고 밝은 전주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도광 스님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이 진행됐다. 승보공양에는 이날 참석한 20명의 스님들에게 재가불자 대표들이 의복과 음식을 공양하며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선망조상들이 극락왕생하길 발원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우란분절을 맞아 전주불교연합회 재가불자들이 우란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스님들을 초청해 공승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공승재를 통해 전주지역 불교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을 전주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번진 생명나눔 향기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광주서 기념식 열려

광주시민들의 생명나눔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천주교광주대교구생명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은 9월 8일 5.18기념관에서 '광주광역시 2017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시상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기념식을 개최한데 이어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헌혈의 날(8/13)과 장기기증의 날(9/9)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스님을 비롯해 박남언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나병진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장, 천주교광주대교구생명운동본부장 김명섭 신부, 공동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위원장, 민영돈 장기기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후원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혈모세포기증 유공자로 박혜수(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추천) 씨를 비롯해 9명이 표창장을 수상했고, 홍보대사에 개그맨 김기욱 씨가 위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성황리 폐막

9월 13~16일, 전주·김제·완주·익산서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전주, 완주, 김제, 익산 등 전북 주요도시에서 열렸다.


스님과 교무, 목사와 신부 등 4대 종교인들이 한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종교간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9월 13~16일까지 펼쳐진 이번 세계종교문화축제는 '마음을 듣다(Listen to Your Heart)'라는 주제로 이웃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의 체험 및 이해를 통해 종교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여는 마당에서는 혜광 스님과 방영식 목사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김혜봉 원불교 교무, 기독교연합회 백남운 목사,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신부,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해 종교간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주 비빔밥과 같이 전북지역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해 화합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행사에서는 4대 종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중찬단의 축하공연과 가수 정태춘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종교문화축제는 이외에도 종교열린마당, 종교문화마당 등 다양한 종교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을밥상'에 핀 주름 속 웃음꽃

진안 쌍봉사, 백운면서 어르신 섬김 나눔잔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백운면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매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 중인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백운면 주민들을 찾아 어르신 섬김 나눔잔치를 열었다.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9월 9일 백운면 사무소 강당에서 백운면 시설 어르신 섬김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어르신 경로잔치는 진안군 백운면 노인선교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희마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연잎밥과 짜장면, 다과를 베풀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찾아올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시설을 방문해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전달했다.

이날 섬김잔치에는 그레이스 예술단과 한빛 음악봉사단이 함께해 경쾌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특히 보경 스님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으며, 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을 위한 미니 연잎밥 체험, 방향제 화분 만들기, 전래놀이 체험이 열렸고 커피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됐다.

보경 스님은 "매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한 단계지만 봉사하시는 신도들의 신심도 높이고, 불교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어 전법과 봉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자비신행회 계층별 사찰음식 제공

대중화된 사찰음식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불교문화의 친근함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지역 재가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9월 8일 자비홀에서 스리랑카 교직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찰음식 만찬을 열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만찬은 광주교육청의 선진교육시스템 정보화교육을 위해 내한한 스리랑카 교육 관련자를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2주간의 교육 수료식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의 환송만찬을 즐겼다.

또한 같은 날 어린이들을 위한 사찰음식 레스토랑도 진행됐다. 만경사(주지 증현)가 자원봉사로 참여한 이날 어린이레스토랑에는 성빈여사보육원, 노틀담형제의집에서 80여 명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만찬시간을 보냈다.

정란 팀장은 "불교계의 공간이 일반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사찰음식이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1년 대한불교대승종

봉 종도수련 대법회 행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큰법당) 055-862-647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대승종 중앙 종의회·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